

“대소변 제대로 못가린다”

전처소생 아기 폭행치사

94.10.9
서울 노랑진경찰서는 8일 동거
하던 남자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
게 한 안정선(31·동작구 상도2동)
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구속했
다.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
1월부터 박아무개씨와 동거해오다
가 지난 6일 오후 10시께 박씨와
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민수(3)군
이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
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
했다는 것이다. 오철우 기자